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ia.com



남북관계 불통과 지도자의 口業

전국 사찰이 신·구·의 삼업 결제로 정진하는 겨울철 안거(安居)에 들어간 가운데 각계 지도자들의 구업(口業)으로 남북 관계가 된서리를 맞았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일부 보수언론은 북한을 향해 독설을 내뿜었고, 대북보수단체의 개성공단 폐쇄까지 겹쳐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여기에 추부길 목사의 경솔한 발언까지 겹쳐 남북불교교류까지 막아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2일 페루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이 최후의 궁극목표"라고 말했다.

헌법 4조에 일각한 주장이지만 대통령 발언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에 초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의도"라고 곧바로 대응했다. 북한정부는 남북상주인력 철수를 요구했고, 11월 28일에는 남북 교류·협력 상징인 경의선 남북철도 운행과 개성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앞서 추부길 목사는 경색되는 남북관계에 그나마 버팀목이 되던 남북불교교류에 찬물을 끼얹었다. 추 목사는 한일불교복지협회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지난 10월 14~18일 평양을 방문한 후 CBS노컷뉴스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가 남측 비공식 장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추 목사의 말은 곧바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불련이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로 11월 11일 사실무건이며 명예훼손이라는 혐의공문을 보낸 것이다. 조불련은 조계종 등 남측불교계에 추 목사 발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류·연대활동도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추 목사의 해명고사과공문이 있었지만 불교계는 한 목사의 발언으로 남북 불교교류가 타격 입을 위기에 처하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불교에서 구업은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당하는 근간이 되며 깨달음에 이르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얘기한다. 우리들은 나의 말한 마디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알면서도 구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돌맹이 하나가 던져져 연못에 사는 개구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과 같다. 일반인의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도자, 종교인의 말이다.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남북교류사에서 이번 말로 인한 관계경색은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일은 불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원만한 삶을 위한 기본 소양일 것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하(정구집인).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일은 불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원만한 삶을 위한 기본 소양일 것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하(정구집인).

사찰생태 기록 7년 결실 맺다

'108사찰 생태환경' 담은 책 발간 및 보고회 개최

불교계 최초의 사찰생태자료가 출간된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는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장에서 '108사찰 생태환경 모니터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7년 동안 기록한 사찰생태자료모음집 <산사의 숲을 거닐다>(지성사, 전 10권)가 간행된다. <산사의 숲을 거닐다>는 2002년 4월 안성 칠장사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 양양 낙산사까지 24개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도량, 기타종단 유령사찰 및 생태가치가 뛰어난 사찰 등 총 108사찰의 생태를 담아 '현대불교'에 연재해 왔다.

김재일 소장은 "108개 사찰을 선정한 것은 환경문제가 인류 생명이 걸린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번뇌를 상징하기 위해서"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찰숲의 모습을 남기고, 사찰의 생활환경과 숲이 어떻게 변하고 파괴되고 있는지 미래세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생태환경 모니터링 보고회가 있기까지는 김재일 소장이 7년동안 전국 각지를 비·바람을 무릅쓰고 누빈 노력이 있었다.

김 소장은 1994년 국내최초 생태탐방 교육프로그램인 두레생태기행을 시행하던 중 사찰환경 훼손이 심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108사찰생태환경 모니터링 보고회'.

각함을 인식하고 2002년 3월 사찰생태연구소 설립, 108사찰의 자연생태와 식생환경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착수했다. 2003년 폐종 양수술과 재발, 이후 항암치료를 받은 고난도 그의 뜨거운 정진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열정에 임학, 식물분류학, 곤충학, 조류생태학, 토양학 등 다양한 생태분야 전문가 27명이 생태대 니터링에 함께했다. 조사내용으로는 담비, 꼬마집자리, 망개나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사찰과 사찰 내 천연기념물, 사찰 생활 환경 현황 및 개선점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숲과 나무에 대한 조사는 1929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실시된 이후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이번 생태환경 보고자료와 모음집은 무분별한 개발로 사찰숲 생태계가 파괴 일로에 처한 시점에서 사찰환경보존의 시급성이 필적당이다.

김재일 소장은 "정부의 개발정책과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으로 사찰숲 생태계가 파괴일로에 있다. 또한 대형불사를 비롯한 지나친 불사도 사찰숲을 적잖게 파괴했다. 선조들이 맑고 넉넉한 사찰숲을 물려줬듯, 우리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사찰숲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며 사찰 환경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ia.com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고따마 붓다'

'사찰, 어느 것도...' '불교와 인권' 우수상 수상

강남포교원장 성철 스님(사진)이 쓴 <고따마 붓다>가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11월 25일 '제5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고따마 붓다>(성철 스님, 문화문고), 우수상에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목경찬, 조계종출판사)와 <불교와 인권>(안옥선, 불교시대사)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의 불서10'에는 성철 스님의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장경각), 월암 스님의 <돈오선>(클리어마인드), 김형중의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운주사), 임현담의

<강린포체 1·2>(도피안사), 김탁환의 <혜초 1·2>(민음사), 도법 스님의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불광), 김미혜의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사계집)가 뽑혔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6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02)2011-1770 이너는 기자



"창조적 모델로 일신해야"

조계종 불학연구소, 총림 주제 토론회 개최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수덕사, 백양사 등 총림승려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원·율원·강원 등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1월 28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가 길'을 주제로 조계종단의 총림을 조명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중국불교의 총림'을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가 '한국불교의 총림'을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조계종단 총림의 역사, 문화'를 △종묵 스님(해인사)이 '총림의 현황, 나아가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정영식 연구교수는 "승가는 '선농일치(禪農一致)'를 통해 최소한의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며 수행에 열중해야 한다"며 총림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조했다.

김상영 교수는 "오늘날 조계종단의 총림 개념은 성철, 청담 스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지극히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불교정신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설명했다. 한국의 총림은 고려 중기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려 후기에는 주로 선찰, 선종을 지칭했고, 조선시대에는 일반사찰을 칭하는 고급용어로 사용됐다는 것.

총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도 논

의했다. 종묵 스님은 "선원은 간화선의 위기라는 현실에, 율원은 율을 연구할 인재부족을, 강원은 교과운영 체계 등으로 혼란스럽다. 총무소(총림)는 대중의 개인화, 세속화를 극복하고자 불사와 법회를 추진하다보니 수행환경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스님은 "총림으로서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각 총림의 가풍이 어울리는 개성만을 마려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영섭 교수는 "교구를 연합해 총림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총림 간 연석회의 설치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청자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실적이 빠르게 정착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전, 단체 사찰순례, 강리,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복현(前 KBS 5TV 앵커) 김경원, 강현태(대영성학 강사)

문의: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타일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n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nia.com 인력인사팀 여시어문 www.yosiamun.com FAX (02)737-0696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회관 개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이 위탁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기)이 11월 26일 3년만에 문을 열었다.

이번 개관식은 파계사 조실 도원 스님, 직지사 조실 녹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전여옥·권영세·주호영 국회의원, 홍보대사 현철 씨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상연 기자

은혜사 주지후보에

돈관 스님 선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후보에 중앙총회의원 돈관 스님이 선출됐다.

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1시 은혜사 승가대학원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돈관 스님을 제24대 은혜사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돈관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고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돈관 스님은 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은혜사 기획국장, 환성사 주지, 대구 불광사 경복불교대학장, 대구경북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손병천 대구지사장

세시간 결가부좌의 즐거움

결가부좌의 수승한 공덕 | 길상좌(吉祥坐)와 항미좌(降魔坐)

본다의 허명을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입장에서 전개한 대선지식 용수보살(龍樹菩薩)은 결가부좌가 참선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좌법(坐法)인 법(法)임을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 제7권에서 밝히고 있다.

모든 앓는 법에서 결가부좌가 가장 안전하여 피로하지 않다. 결가부좌가 좌선수행하는 선지식의 좌법이다. ... 결가부좌는 참선수행자의 좌법으로 깨달음(도법)을 성취하는 좌법이다. 그래서 마왕(魔王)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 마왕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참선수행자의 그림만 보아도 두려움의 근원으로 불인해하는데 허물며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선지식이 없는데 있어서 결가부좌의 좌법을 택하지 않았는가!

결가부좌연습 1 한기정화

결가부좌 연습에 들어갈 때 먼저 생명의 주요 지점인 목 부위, 허리 부위, 무릎 부위, 발바닥 부위의 한기를 정화한다.

결가부좌연습 2 근육이완

근육이완 수련은 결가부좌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이다.

결가부좌연습 3 완성자세

몸의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상호작용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결가부좌 자세는 주로 골반을 중심으로 아래로 발, 위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신체근육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결가부좌 자세를 만들어갈 때 결가부좌의 움직임이 없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혈이 순환될 수 있게 된다.

결가부좌연습 4 한 시간 결가부좌

완성자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한 시간 결가부좌를 관음과 명상을 하고, 모두 여덟과정을 순서대로 수련한다. 먼저 첫 번째로 도인요즘과 가슴보기를 수련한 다음 이어서 도인요즘과 뒷배보기, 도인요즘과 아랫배보기, 도인요즘과 명문보기, 도인요즘과 관만보기, 도인요즘과 무릎보기, 도인요즘과 발바닥보기, 도인요즘과 단련보기 순으로 수련한다.

결가부좌연습 5 두 시간 결가부좌

두 시간 동안 결가부좌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바닥부위 현상, 발목부위 현상, 교차부위 현상, 무릎부위 현상, 대퇴부위 현상, 고관절부위 현상, 허리부위 현상, 다리마부 현상, 가려운 현상, 호흡장애 현상, 상기중립 현상과 그 밖에 현상들에 상응한 대처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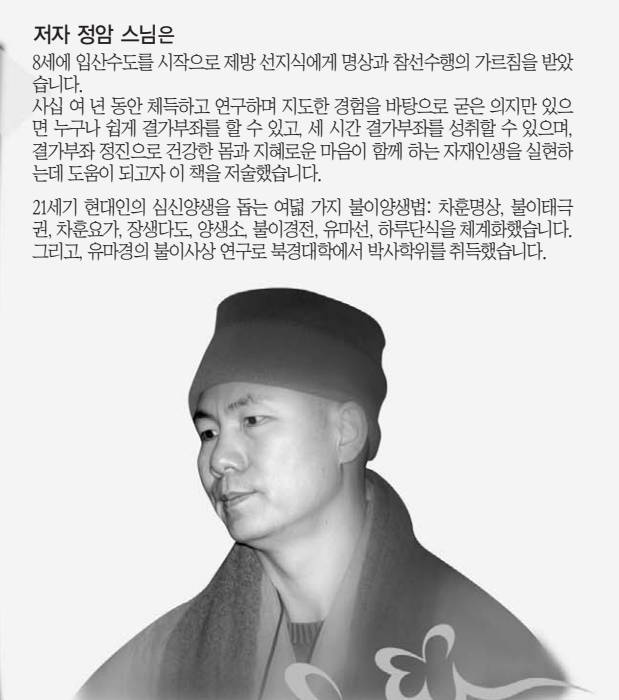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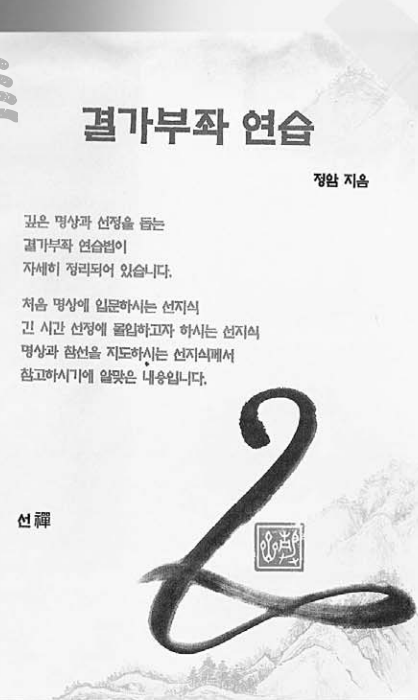
결가부좌연습 6 세 시간 결가부좌

현실의 고락번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결가부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 된다는 마음가짐, 의식이 사물과 대응하면서 다양한 분별연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 그 속에 항상 분별상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본래면목이 확연히 깨어 있다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세 시간 이상의 순밀한 결가부좌 정진력을 성취하게 된다.



결가부좌 어깨서기와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의 정진자세는 바르게 앉은 자세를 주요 방법으로 어깨서기,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 누운 자세, 결가부좌, 앙드린 자세, 결가부좌, 손질 선 결가부좌, 엉덩이로 선 결가부좌, 옆으로 선 결가부좌 등 다양한 자세가 있다.



결가부좌 선양회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을 성취하는 수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가부좌선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1회 결가부좌 삼일정진을 2009년 4월 18일~20일 불이양생치약산수련원에서 개최합니다. 뜻 있는 많은 선지식께서 동참하시어 결가부좌 정진력 향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가부좌선양회 회원일동 합창
■ 결가부좌 상담 : 채선 선생님(한국불이양생교육원장) 010-6720-2115
결가부좌선양회 www.결가부좌.com / www.shuangpan.com 전화 052)260-1636 / 팩스 052)261-163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6-7 박달진수학학원 3F